

인니 롬복 섬 7.0 지진...사망자 140명 넘어

130여 차례 여진·해일 발생
'불의 고리' 조산대 지진 빈번
한국인 관광객 수십명 체류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 섬 북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휴양지인 롬복 섬 북부를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현장 접근이 어려운 최대 피해지역인 섬 북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수색작업이 완료되면 사상자 규모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롬복 섬을 관할하는 누사텐가라바루 주 정부 당국자는 6일 현지 방송인 메트로TV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각으로 전날 오후 7시 46분께 롬복 섬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대변인은 확인해 줄 수 없는 보도라면서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토포 대변인은 "도로와 교량 3곳이 끊겼다. 일부 지역은 아직도 접근이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롬복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무너진 이슬람 사원에 주민들이 깔려 있지만 중장비가 없어서 맨손으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수토포 대변인은 덧붙였다. 현지에선 최대피해지역에 대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 사상자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중상자 200여명 중에서도 4명이 치료 중 숨지는 등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정전사태가 발생한 섬 북부와 동부 지역은 아직도 전력 공급이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은 규모 7.0의 강진이며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해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롬복 섬 일대에선 이후 130여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tvN '윤식당' 촬영지로 유명한 롬복 서쪽 해상 길리 트라왕안 섬에서는 공포에 질린 관광객을 소개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BNPB는 선박 세 척을 동원해 길리 트라왕안 섬과 주변 섬에 머물던 1200여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롬복 본섬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길리 트라왕안 섬에는 지진 발생 당시 약 80여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한국인 관광객은 "무더위에 급하게 뛰쳐나오는 바람에 밤새 불안이 떨고 못한 모험도 마시지 못했다. 부상자도 있다"면서 "공항에 가도 비행기를 타려면 며칠

을 기다려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버스를 대절해 본섬으로 나온 한국인 관광객을 공항과 항구 등으로 옮기고, 현지에 담당 영사를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롬복 프리아 국제공항과 발리 응우라라 국제공항은 터미널 건물 내부가 일부 파손됐으나, 활주로 등 핵심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공항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정을 앞당겨 귀국 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장 항공권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 관광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번하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44> 시선 이백

이백(李白, 701-762)의 자는 태백 호는 청련거사다. 두보와 함께 중국 최대의 시인으로 꼽힌다. 출생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의 집안은 간쑤성 통시현에 살았고 부친은 서역의 상인으로 활동했다. 쓰촨성 창명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5세 무렵 촉을 떠나 중앙으로 나아갔다. 이때 촉 제일의 명산인 아미산에 관한 시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를 남겼다. 이후 742년 42세때 장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흔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남성, 산서성, 하북성, 산둥성, 강소성, 안휘성, 절강성 등 광범위한 지방을 편력하였다. 호북성 강릉에서 도교 교단 지도자 사마승정을 만났는데 선풍도골(仙風道骨)의 품격이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장강을 내려가 강남

744년 44세때의 일이다. 이후 안녹산의 난이 일어난 755년까지 방랑의 세월을 보냈다. 744년 초여름 낙양에서 두보를 만났다. 둘은 함께 술잔을 주고받으며 문학을 논했다. 만취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자기도 했다. 문인 문인이라는 둘의 만남에 대해 "우리 4천년 역사상 이처럼 중대하고 이처럼 신성하고 이처럼 기념해야 할 만남은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창공에서 태양과 달이 만난 것과도 같이 기이하고도 상서로운 징조였다"고 설명했다. 섬서성 석문(石門)에서의 이백에 즈음해 이백은 "언제가 될까 이 석문길에서, 다시 우리가 술잔치 무경을 열 날이"라는 이별시를 헌정했다. 755년 안녹산이 서진해 낙양을 돌파하고 장안에 입성함으로써 당 왕조는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현종은 사천으로 피난가고 황태자 이형은 감숙성 영

중국 최고의 시인...삶 자체가 서정시

문화의 중심지인 금릉과 양주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30여 만금을 탕진했다. 30세 무렵 호북의 안록에 나타나 지역 명문인 허씨 가문의 딸과 결혼한다. 허씨 가문은 재상을 지낸 명가인데 그와 혼사를 결정할 것은 의외의 사건이다. 호방한 이백의 풍모에 끌려 사위로 맞이했다는 해석이 있다. 관직을 얻기 위해 활동하면서 시심이 맞는 문우들과 교류도 활발히 했다. 도시 원구단과 시인 맹호연과 사귀었다. 30대 중반 이후에는 낙양과 태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산동성에 눌러앉아 수년간 살았다. 시인 두보와 원진 등이 그를 '산동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산동지방과 적잖은 인연을 맺은 것 같다. 사십 줄에 접어들어 절강의 도사 오균과 인연을 맺었다. 한림원에 들어간 오균의 추천으로 드디어 현종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천보 2년(742) 장안에 입성했다. 한림공봉(翰林供奉)의 관직을 얻었다. 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는 한직이었다. 가끔 황제의 부름을 받고 시를 짓는 것이 유일한 직무였다. 청평조(淸平調) 세 수가 이즈음 탄생했다. 황제의 면전에서 실제 환관 고력사의 비위를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산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장안에서 쫓겨났다.

무에서 속종으로 즉위한다. 현종은 16번째 아들 영왕 이린을 강릉 대도독에 임명해 강남 사수를 명하였다. 속종은 이런 움직임에 위기감이 들었다. 이백은 영왕의 참모가 되었다. 영왕은 속종의 군대에 패해 불참해 죽임을 당하고 이백도 심야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처절하게 구명운동을 펼 끝에 어사중승 송악사의 변호로 처형을 면하고 758년 귀주성 양양으로 유배되었다. 다음해 대장군 좌지에 의해 구명, 사면되었다. 이후 금릉, 역양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762년 11월 안휘성 당도현령 이양빙의 집에서 객사했다. 영구리가 씌어 들어가는 병이었다고 한다. 이백과 두보는 한시의 양대 기둥이다. 두보는 시성(詩聖)이라 하는 반면 이백은 시선(詩仙) 또는 하늘에서 쫓겨난 적선(謫仙)으로 불리운다. 두보가 정성껏 퇴고해 짓는 반면 이백은 흥취무진 생각나는대로 완성한다. 두보가 요언술시에 강한 반면 그는 약부 칠근할 필요도 없는 한직이었다. 가끔 황제의 부름을 받고 시를 짓는 것이 유일한 직무였다. 청평조(淸平調) 세 수가 이즈음 탄생했다. 황제의 면전에서 실제 환관 고력사의 비위를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산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장안에서 쫓겨났다.

아세안 외교장관들 北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구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지난 4일 남북한 포함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국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장관들이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4월 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의 북미정상 회담을 환영했다"며 "그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함께 "일부(some)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우려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도 담았다. 다만 이번 의장성명에는 작년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라는 표현이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CD)로 대체됐다.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 표명에 방점이 찍혔던 작년 의장성명에 비해 전반적으로

톤이 달라졌다. 외교부는 의장성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국제사회가 우리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의장성명에 판문점선언 환영 및 이행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기거명인 사실을 강조했다. 또 'CVID' 대신 'CD'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대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ARF는 역대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무장관 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대 다자간 보건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